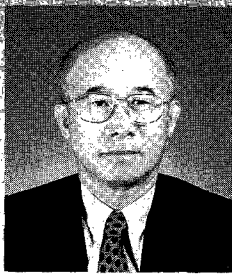


편집위원 칼럼

월간 양계 30주년에



신 정 재
과학사료 대표

월간 양계 3주년(1972년 11월)을 축하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글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자기의 세들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은 마음껏 축복해 주고 귀여워 해 주었을 것이다.”

그렇다. 그때 당시에는 보잘 것 없이 초라했던 창간시에 비하면 질량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한 월간 양계지를 대견해 했고 양계업계 발전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더욱 크게 하였다.

당시의 기사 내용을 보면 양계업계의 양적 성장을 뒤받침하는 사료, 영양, 질병 등에 치우쳐 있었고 기술지를 방불케 하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았으며 필자들도 대학교수분들을 주로 해서 연구기관 등의 연구관이 많았던 것도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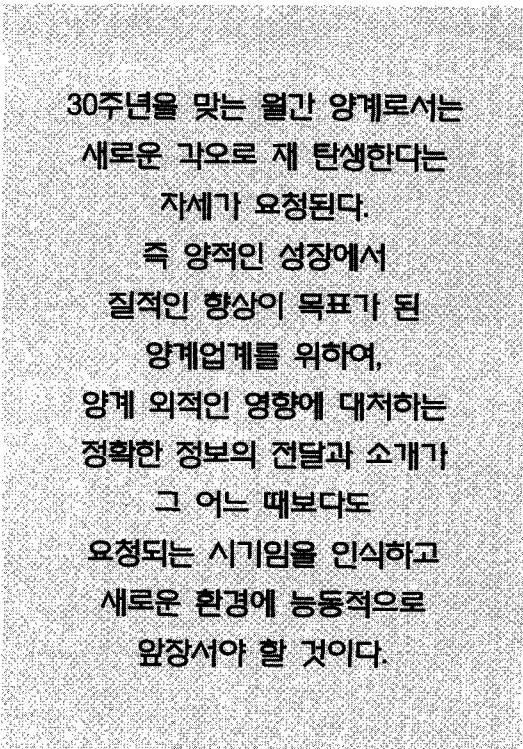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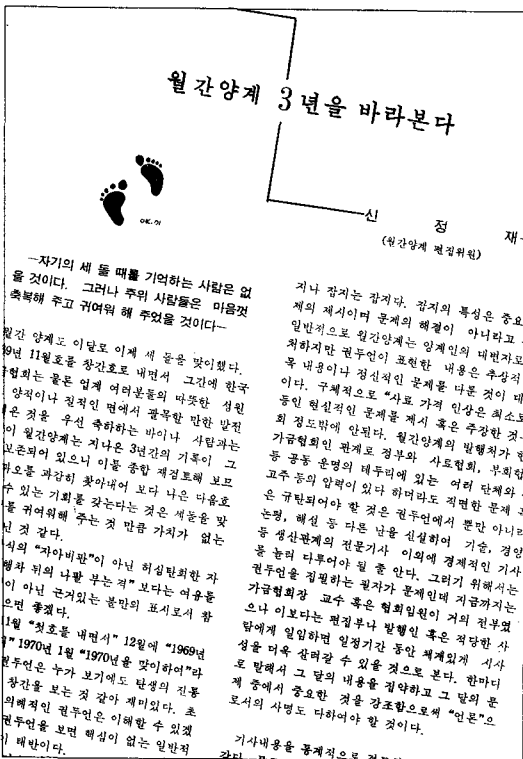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의 양계 업계는 어떤가?

아직도 양계는 쉽게 할 수 있는 업종이 인식되는 분위기에서 고질적인 과잉생산, 계속·계란 가격의 폭락과 폭등의 반복으로 점철된 유통 구조개선은 재벌 구조개선 만큼이나 어려운 환경이다.

물론 양계 외적인 영향 즉, 수입의 개방, 소비의 감소로 인한 원인을 핑계로 삼기보다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이기적으로 계산된 사양수수의 증가는 자기 무덤을 파는 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는 것이 희망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2001년의 농축산물의 완전 수입개방에 대비



한 업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에 대비한 지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통구조 개선책으로 계열화 출하율을 대폭 증대시킴은 물론 국산 신선육의 우월성과 소비촉진운동의 추진력이 될 자조금 제도의 확립, 종합적이고 조직적인 질병 대책 본부의 활성화가 그 한 예이다. 보통 기업의 수명은 30년이라고 한다. 30주년을 맞는 월간 양계로서는 새로운 각오로 재 탄생한다는 자세가 요청된다. 즉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향상이 목표가 된 양계업계를 위하여, 양계 외적인 영향에 대처하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소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시기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1970년 12월 편집후기란에 나온 편집자의 신념을 소개하면 “대망

의 70년도 이제 저물어 간다. 보내는 아쉬움보다 맞이하는 기쁨과 희망이 더 큰 것은 70년도에 해 놓은 일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크고 보람차기 때문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크고 보람찬 것은 인간의 꿈이다.-”

그러나 20세기를 마감하는 지금의 월간 양계의 편집자는 어떤 신념을 가져야 하는가? 모든 분야가 20세기의 산업사회에서 21세기의 정보화사회로 전환하면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각오해야 한다. 양계업계도 더 어려워지는 생산 조건과 유통환경에 필요한 양계외적 정보와 지식을 더욱 많이 그리고 열심히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망의 21세기가 아닌 내실 있고 알찬 양계”를 위한 편집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양계**